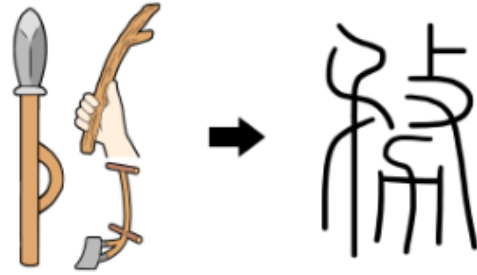


4(2)
-
61

회의문자①



務

힘쓸 무:

務자는 '힘쓰다'나 '업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務자는 敕(힘쓸 무)자와 力(힘 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敕자는 창과 몽둥이를 함께 그린 것으로 '힘쓰다'라는 뜻이 있다. 敕자에 이미 '힘쓰다'나 '업무'라는 뜻이 있지만 務자는 여기에 力자를 더해 '힘쓰다'라는 뜻을 더욱 강조한 글자이다. 그래서 務자나 敕자 모두 같은 뜻이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務자가 쓰인다.

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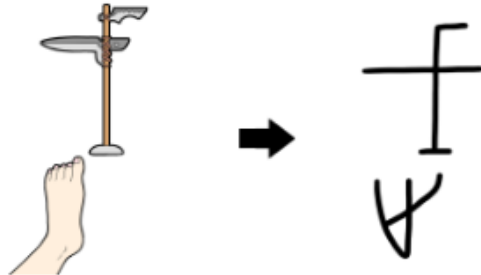
소전

務

해서

4(2)
-
62

회의문자①



武

호반 무:

武자는 '무사'나 '무예', '무인'을 뜻하는 글자이다. 武자는 戈(창 과)자와 止(발 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戈자는 낫과 같은 모양의 고대 무기를 그린 것이다. 이 무기는 방패 뒤에 숨어 적의 발목을 절단하는 용도로 쓰였다. 武자는 이렇게 창을 그린 戈자에 발을 뜻하는 止자를 더한 것으로 무사가 창을 들고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했다.

武

갑골문

武

금문

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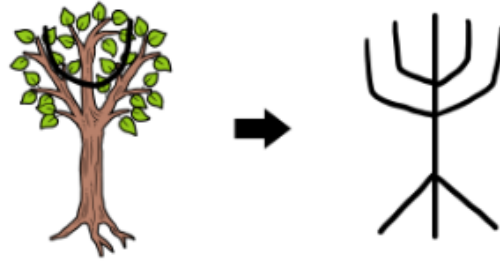
소전

武

해서

4(2)
-
63

지사문자①



未

아닐
미(:)

未자는 '아니다'나 '아직~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未자의 갑골문을 보면 木(나무)자의 윗부분에 획이 하나 그어져 있었다. 이것은 나뭇잎이 '무성하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未자의 본래 의미는 '(나뭇잎이)무성하다'였다. 그러나 지금은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아직'이나 '없다'의 뜻으로 가차(假借)되어 쓰이고 있다. 未자는 '끝부분'을 뜻하는 末(끝 말)자와 매우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다만 未자는 끝부분의 획이 긴 반면 末자는 짧게 되어 있으니 이러한 차이점으로 구분해야 한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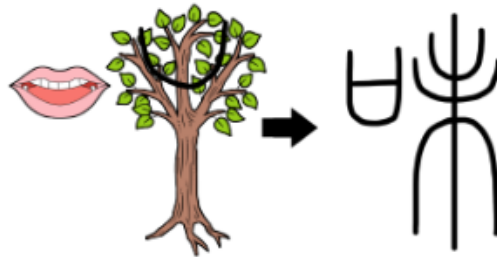
소전



해서

4(2)
-
64

회의문자①



味

맛 미:

味자는 '맛'이나 '기분', '의미'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味자는 口(입 구)자와 未(아닐 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未자는 '아직~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본래는 나무 끝의 가느다란 가지를 뜻하던 글자였다. 음식의 맛을 느끼거나 구별하는 데는 세밀한 감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강조한 未자는 맛의 미세한 차이를 느낀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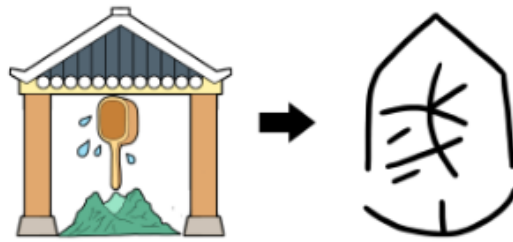
소전



해서

4(2)
-
65

형성문자①



密

백백할
밀

密자는 '백백하다'나 '쭈쭈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密자는 宓(잠잠할 밀)자와 山(되 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宓자는 집안에 두레박을 그려 넣은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密자에 쓰인 山자는 백백하다는 뜻을 전달한다. 山자를 깊고 숲이 우거진 산세로 응용해 '백백하다'나 '쭈쭈하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산림이 우거져 백백하다는 것은 빈틈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密자는 '백백하다'나 '빈틈이 없다'나 '꼼꼼하다'와 같은 철두철미함을 뜻하고 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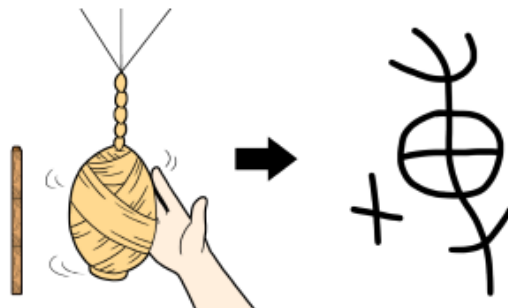
소전



해서

4(2)
-
66

회의문자①



博

넓을 박

博자는 '넓다'나 '깊다', '넓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博자는 十(열 십)자와 博(퍼다 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博자는 손으로 실타래를 푸는 모습을 그린 博(오로지 전)자와 같은 글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博자도 방추를 돌려 실타래를 푸는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博자에는 '퍼다'나 '퍼지다'라는 뜻이 있다. 博자에 쓰인 十자는 숫자 10을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꼭 찬 숫자라는 의미에서 '모두'라는 뜻을 전달한다. 10은 소수에서는 가장 높은 수이기 때문이다. 博자는 이렇게 꼭 찬 수를 뜻하는 十자에 '퍼다'라는 뜻을 가진 博자를 결합한 것으로 모든 실을 풀어 '넓게 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博자가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뜻하다 보니 '노름하다'라는 뜻까지 파생되어 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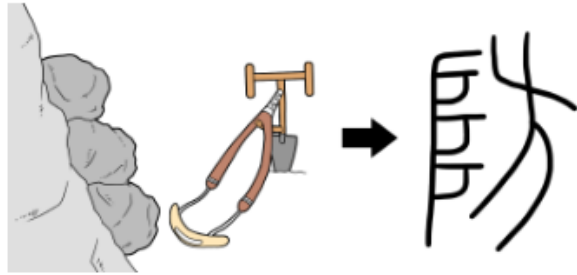
소전



해서

4(2)
-
67

회의문자①



防

막을 방

防자는 '막다'나 '방어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防자는 阜(β :언덕 부)자와 方(모 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方자는 밭을 갈거나 흙을 쌓는 용도로 사용하던 농기구를 그린 것이다. 그러니 防자는 독을 쌓아 언덕을 만들어 무언가를 막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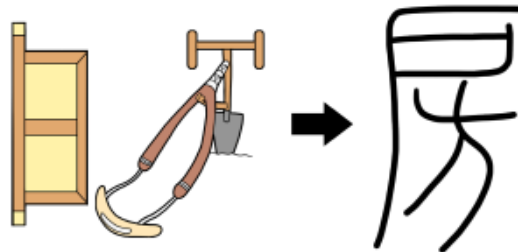
소전

防

해서

4(2)
-
68

회의문자①



房

방 방

房자는 '방'이나 '거실', '가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房자는 戶(지게 호)자와 方(모 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方자는 소가 끄는 쟁기를 그린 것으로 '방향'이나 '네모'라는 뜻을 갖고 있다. 房자에 쓰인 方자는 발음역할을 하면서도 '네모'라는 뜻도 함께 전달하고 있다. 보통의 거주공간은 네모난 구조로 지어져 있다. 그러니 房자는 네모난 방(方)으로 들어가는 출입구(戶)라는 의미에서 '방'을 뜻하게 된 것이다.

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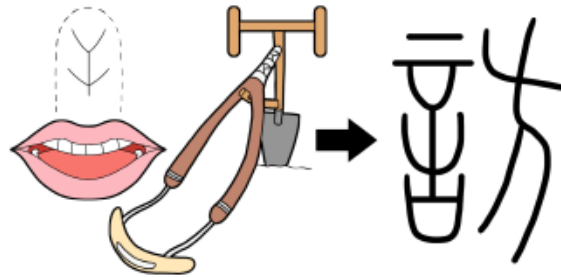
소전

房

해서

4(2)
-
69

회의문자①



訪

찾을 방:

訪자는 '찾다'나 '탐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訪자는 言(말씀 언)자와 方(모 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訪자에서 말하는 '찾다'라는 것은 의견을 물어 답을 찾는다는 뜻이다. 方자는 밭을 가는 도구인 가래를 그린 것으로 '방향'이나 '사방'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訪자는 이렇게 '사방'이라는 뜻을 가진 方자에 言자를 결합한 것으로 '의견(言)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方)한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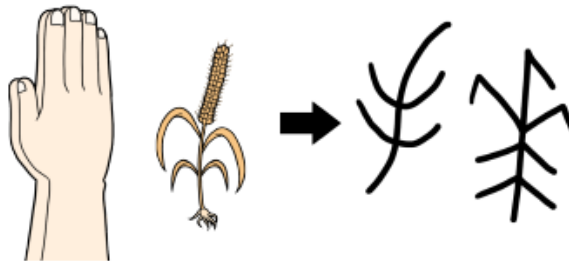
소전

訪

해서

4(2)
-
70

회의문자①



拜

절 배:

拜자는 '절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拜자는 手(손 수)자를 겹쳐 그려 두 손 모아 절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拜자를 자세히 보면 오른쪽의 글자체가 手자와는 다르다. 拜자의 금문을 보면 𡇗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麥(보리 맥)자를 𡇗 그린 것이다. 拜자는 본래 수확한 곡식을 조상신에게 바치며 절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래서 곡식을 올려 절하는 모습으로 그려졌었지만, 후에 글자체가 바뀌면서 마치 두 손을 모은 것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되었다.

𡇗

금문

𡇗

소전

拜

해서